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의 변천에 대한 연구

박교식¹⁾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는 1946년에 군정청 문교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에 만들어진 고유어 수학 용어의 대부분은 대개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고유어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만든 것을 축약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20년도 지나지 않아 고유어 수학 용어의 반 정도가 다시 한자어 수학 용어로 환원되었고, 대부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수학 교수·학습에서 한자어 수학 용어의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고, 고유어 수학 용어의 사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고유어 수학 용어의 사용을 서두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한자어 수학 용어를 고유어 수학 용어로 바꾸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성공적인 고유어 수학 용어의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고유어 수학 용어를 만들려는 시도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잘 존속하고 있는 고유어 수학 용어가 가진 생존력의 정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존속되지 않는 고유어 수학 용어의 실패 요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유어 수학 용어, 수학 용어, 초등학교 수학, 한자어 수학 용어

I. 서론

1945년의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이 시작된지 70년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자어 수학 용어가 고유어 수학 용어로 바뀌었고, 그 중에는 현재도 그대로 통용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해방과 함께 식민지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한자어 수학 용어를 고유어 수학 용어로 바꾸려는 시도가 당시의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했다(서울신문 1946. 3. 25; 조선일보 1946. 11. 20). 고유어 수학 용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은 1946년부터 있었던 당시의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정재환, 2012). 당시의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이었던 최현배는 교수요목제정위원회와 학술용어제정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유어 수학 용어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조선일보 1947. 3. 23).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제정위원회와 학술용어제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수학 분야에서 그 두 위원회에 대표로서 참석한 인물과 그 두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고유어 수학 용어에 대해서도 현재 알려져 있는 바가 거의 없다. 그 두 위원회에 수학 교수 및 수학 교사가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문교부(1988)의 《문교40년사》 및 허강 외(2000)의 《한국

1) 경인교육대학교

편수사 I》에서 그와 관련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당시의 교과서에서 교수요목제정위원회와 학술용어제정위원회에서 만든 고유어 수학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고유어 수학 용어가 모두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일본 색깔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새롭게 만들었기에 생소하고 낯선 고유어 수학 용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어 1947년 3월 23일자 조선 일보의 기사 <알기 어려운 신제 국문 용어. 문교부 편찬 교과서에 관한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 만들어진 고유어 수학 용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일반화된 한자어 수학 용어는 그냥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지나친 고유어 수학 용어 제조라고 말하기도 했고, 더욱이 고유어 수학 용어의 제조와 사용이 건국초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에 그들이 불편하다고 예시한 고유어 수학 용어에는 고른수(←平均), 덧셈(←加法), 반올림(←四捨五入), 뺄셈(←減法), 세모꼴(←三角形), 지름(←直徑) 등이 있었다.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수학 용어인 덧셈, 반올림, 뺄셈, 지름이 그 당시에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1946~1947년에 새로 만들어진 고유어 수학 용어에 대한 비판이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후로도 거의 20여년에 걸쳐 비판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6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수학과 편수자료(이하, 《1964 편수자료》)의 서문(p.28)에서 “이미 제정 사용하는 수학 용어 중에서 불합리하고 미비된 점을 고치자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고 하고 있다.²⁾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을 계기로 수학 용어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1964 편수자료》를 보면, 1946~1947년에 만들어진 상당수의 고유어 수학 용어가 다시 한자어 수학 용어로 환원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1964 편수자료》의 서문에서 말하는 불합리하고 미비한 수학 용어의 상당수는 1946~1947년에 만들어진 고유어 수학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64 편수자료》가 1964년 이후에 고유어 수학 용어로 존속할 것과 존속하지 못할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고유어 수학 용어 변천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1964 편수자료》에서 <수학 용어를 개정하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상당수 고유어 수학 용어를 한자어 수학 용어로 되돌린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1964 편수자료》에서 1946~1947년에 만들어진 상당수의 고유어 수학 용어를 퇴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굳건히 통용하는 고유어 수학 용어가 적지 않다. 이것은 이러한 고유어 수학 용어에 생존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학교육에서 한자어 수학 용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고유어 수학 용어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허민, 2013, 2016a, 2016b)는 점에서 볼 때,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고유어 수학 용어가 생존력을 얻은 과정과 잃은 과정에 대한 반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1946~1947년 당시에 만들어진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와 그 중에서 현재까지 통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를 새로 만들 때, 또는 이미 있던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를 복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원문에 ‘미비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비한’이 옳다. 《1964 편수자료》의 정식 명칭은 《편수자료 제5집》이다. 여기에는 <학교 문법의 통일>, <국사 교육 내용의 통일>, <수학 용어의 개정>, <물리 용어의 통일>, <화학 용어의 통일>의 다섯 가지가 실려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27~54쪽의 <수학 용어의 개정>을 《1964 편수자료》라고 한 것이다.

II. 분석의 대상과 방법

1. 분석의 대상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분석 대상 문헌은 편수자료이다.³⁾ 특히, 문교부에서 1964년에 발행한 《편수자료 제5집》 27~54쪽의 수학 부분, 문교부에서 1987년에 발행한 《편수자료 III 기초과학》 1~49쪽의 수학 부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에 발행한 《편수자료 III 기초과학 편》 7~57쪽의 수학 부분, 교육부에서 2015년에 발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 기초과학, 정보 편》 1~48쪽의 수학 부분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각각 간단히 《1964 편수자료》, 《1987 편수자료》, 《2007 편수자료》, 《2015 편수자료》로 나타내고 있다. 《2007 편수자료》는 2004년에 발간된 《편수자료 III 기초과학 편》의 제2판이다. 《2007 편수자료》와 《2015 편수자료》 사이에도 편수자료가 발행되었지만, 수학 부분은 변화가 없었다.

한편, 1946~1947년 당시의 고유어 용어를 살펴보기 위해, 김철수가 1947년에 펴낸 《초등셈본 지도해설서 (문교부 발행 국정교과서 의거) (6年 前期)》에 실린 <셈본에 나오는 중요한 학술 용어 일람표>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책은 당시의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김철수가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의 수학 편수사(허강 외, 2001)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 일람표가 나름대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일람표를 간단히 《김철수(1947)》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김철수(1947)》을 보완하기 위해, 교수요목기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이하, 교과서)를 참고했다.⁴⁾ 교수요목기 교과서의 명칭은 《초등셈본》→《초등셈본(산수공부)》→《초등셈본》→《셈본》과 같이 바뀌었다. 앞의 《초등셈본》은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것이고, 뒤의 《초등셈본》은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발행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교과서가 발행된 연도와 명칭을 함께 사용하여, 예를 들어 ‘1946년판 《초등셈본 6-1》’과 같이 나타내었다.

2. 분석의 방법

본 논문에서 고유어 용어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을 의미한다. 첫째, 한자어를 완전히 고유어로 바꾸어 새로 만든 용어이다. 예를 들어 한자어 용어인 菱形(능형)에서 菱을 고유어 마름으로, 形을 고유어인 모로 바꾸어 만든 마름모(←菱形)가 이것에 해당한다. 둘째, 한자어 일부는 한글 음으로 적고, 그 나머지를 고유어로 바꾸어 만든 용어이다. 예를 들어 한자어 용어인 角錐(각추)에서 角을 한글로 적고, 錐를 고유어인 뿔로 바꾼 각뿔(←角錐)이 이것에 해당한다. 즉, 이것은 한자어 용어와 고유어 용어를 혼합한 형태이다. 반올림(←四

3) 이하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를 간단히 고유어 용어, 초등학교 한자어 수학 용어를 간단히 한자어 용어라고 하기로 한다.

4) 1946년부터 1954년까지의 1~3학년 교과서와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4~6학년 교과서를 연도별로 모두 찾을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만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를 참고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교수요목기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고유어 수학 용어를 모두 찾은 것은 아니다.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를 연도별로 모두 찾을 수 있다면, 초등학교에서의 고유어 수학 용어의 면모가 훨씬 더 자세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捨五入)과 같이, 원래 용어에는 없는 새로운 한자어 용어와 고유어 용어를 혼합한 것도 둘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셋째는 한자어 일부는 고유어로 바꾸고, 그 나머지 영어를 한글 음으로 적어서 만든 용어이다. 예를 들어, 한자어 용어인 棒狀圖表에서 棒狀을 고유어인 막대로 바꾸고, 圖表를 영어 graph로 바꾼 뒤 한글로 적어서 만든 막대그래프(←棒狀圖表)가 이것에 해당한다. 넷째는 한자어 일부는 한글 음으로 적고, 또 다른 일부는 고유어로 바꾸고, 그 나머지 영어를 한글 음으로 적어서 만든 용어이다. 이러한 예는 꺾은선 그래프(←折線圖表)의 하나뿐이다. 이것은 한자어 용어 折線圖表에서 折을 고유어인 ‘꺾은’으로 바꾸고, 線을 한글로 적고, 圖表를 영어 graph로 바꾼 뒤 한글로 적어서 만든 것이다. 이 네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 ①] 고유어 (예: 마름모)
- [유형 ②] 한자어, 고유어 (예: 각뿔, 반올림)
- [유형 ③] 고유어, 영어 (예: 막대그래프)
- [유형 ④] 한자어, 고유어, 영어 (예: 꺾은선그래프)

본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 형태를 분석틀로 하여 《김철수(1947)》, 《1964 편수자료》, 《1987 편수자료》, 《2007 편수자료》, 《2015 편수자료》에서의 고유어 용어의 변천을 추적한다.

Ⅲ. 선행 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 박지현, 도종훈(2011), 도종훈, 박지현(2013a, 2013b)이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우리나라 초·중·고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수학 용어의 변천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도종훈, 박지현(2013b)에서 그 변천 과정을 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여기서 상당수의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의 변천도 볼 수 있다.

도종훈, 박지현(2013b)에서는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로 《셈본》을 택하고 있지만,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는 《초등셈본》→《초등셈본(산수공부)》→《초등셈본》→《셈본》과 같이 그 명칭이 바뀌었고, 내용에도 변화가 있다. 실제로 1946~1947년에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초등셈본》과 1950년대 초반에 문교부에서 발행한 《셈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실상 교수요목기의 학년·학기별 및 연도별 교과서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교수요목기의 교과서가 연도별로 모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비교적 확보가 용이한 《셈본》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종훈, 박지현(2013b)에서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들은 《셈본》에서 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곱은 배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곱셈의 결과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1950년판 《셈본 5-2》 25쪽에서 배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곱을 볼 수 있다. 1954년판 《셈본 4-2》 25쪽에서 곱셈을 한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곱을 볼 수 있다. 또, 《셈본》에서 회전축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53년판 《셈본

6-1》 121쪽에서 회전축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돌대를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셈본》에서 돌림체, 배수, 백분율, 비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53년판 《셈본 6-1》 121쪽에서 회전체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맴돌이를 볼 수 있고, 1953년판 《셈본 5-1》 67쪽에서 배수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곱수를 볼 수 있다. 또한 1953년판 《셈본 6-1》 21쪽에서 백분율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푼수와 66쪽에서 비례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같은비를 볼 수 있다.

도중훈, 박지현(2013b)은 《셈본》에서 나란히금과 뺄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1954년판 《셈본 4-1》 72쪽, 74쪽에서 나란히금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지만, 1946년판 《초등셈본 4-1》 29쪽과 1948년판 《초등셈본(산수공부) 4-1》 29쪽에서는 평행선의 의미로 사용한 용어인 나란히가는금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나란히가는금→나란히금’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1952년판 《셈본 1-2》 26쪽에서 뺄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빼는셈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49년판 《초등셈본 2-1》 24쪽에서 빼는셈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빼는셈→뺄셈’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제2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까지 옆면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73년판(제2차 교육과정) 《산수 6-1》 100쪽에서, 1982년판(제3차 교육과정) 《산수 6-1》 90쪽에서, 1983년판(제4차 교육과정) 《산수 6-1》 76쪽에서, 1994년판(제5차 교육과정) 《산수 6-2》 69쪽에서, 1999년판(제6차 교육과정) 《수학 6-1》 90쪽에서 옆면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⁵⁾

IV.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의 대두와 변천

1.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의 대두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에서 고유어 용어는 1946~1947년에 군정청 문교부가 발행한 《초등셈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초등셈본》의 집필을 위한 별도의 편수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등셈본》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고유어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초등셈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어 용어는 《김철수(19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이 당시의 교과서 집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이종국, 2000), 수학 편수사인 김철수도 당시에 고유어 용어를 만들고 사용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김철수(1947)》에서 고유어 용어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때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표 1>을 작성할 때, 2015년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b)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수학에서 취급하지 않는 고유어 용어는 제외했다. 이렇게 제외한 고유어 용어로 기울기(←句配), 늘인그림(←擴大圖), 닳

5) 도중훈, 박지현(2013b)에서는 이 이외에도 제2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대응, 대칭의 중심, 식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67년판 《산수 6-2》 41쪽에서 대응, 42쪽에서 대칭의 중심, 22쪽에서 식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또,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회전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83년판 《산수 6-1》 85쪽에서 회전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또,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까지 회전축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83년판(제4차 교육과정) 《산수 6-1》 85쪽에서, 1990년판(제5차 교육과정) 《산수 6-2》 79쪽에서, 1997년판(제6차 교육과정) 《수학 6-2》 89쪽에서 회전축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음꼴(←相似形), 부채꼴(←扇形), 모아짜기(←組合), 같은 비로 나간다(←比例), 역비로 나간다(←反比例), 빗면(←斜面) 등이 있다. 한편, ‘線→금/선’ 과 같이 고유어 용어와 한자어 용어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 한자어 용어를 / 뒤에 제시하였다.

<표 1>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김철수(1947)》을 중심으로, 번호는 유형)

구용어→신용어(1947년경)	구용어→신용어(1947년경)	구용어→신용어(1947년경)
橫→가로 ①	加→더하기 ①	減數→빼는수 ②
胸圍→가슴둘레 ①	加數→더하는수 ②	被減數→빼지는수 ②
倍→곱절/곱 ①	被加數→더해지는수 ②	梯形→사다리꼴 ①
值→값 ①	寄算→덧셈 ①	縱→세로 ①
等→같다 ①	回轉軸→돌대 ①	三角→세모/삼각 ①
表面積→것넓이 ①	圓→동그라미/원 ①	三角錐→세모뿔 ①
平均→고른수 ②	二位數→두자리수 ②	三位數→세자리수 ②
直線→곧은금/직선 ①	周→둘레 ①	三乘, 立方→세제곱 ①
積→곱 ①	容積→들이 ①	計算→셈 ①
掛算→곱셈 ①	菱形→마름모 ①	暗算→속셈 ①
倍數→곱수 ②	막대圖表→막대그림표 ③	實測→실지제기 ①
乘→곱하기 ①	對角線→맞모금 ①	下底→아랫변 ②
乘數→곱하는수 ②	對稱形→맞선꼴 ①	概算→어림셈 ①
被乘數→곱해지는수 ②	對稱軸→맞선대 ①	概數→어림수 ②
球→공 ①	約分→맞줄임 ①	母線→어미금 ①
曲線→굽은금 ①	回轉體→맴돌이 ①	側面積→옆넓이 ①
圖形→그림꼴 ①	角柱→모기둥 ①	側面→옆면 ②
圖表→그림표 ②	角錐→모뿔 ①	切上→올림 ①
方眼紙→그림표종이→모눈종이 ①	稜→모서리 ①	圓柱→원기둥 ②
線→금/선 ①	形→꼴/모양 ①	圓周→원둘레 ②
長→길이 ①	商→몫 ①	圓錐→원뿔 ②
頂點→꼭지점 ②	體重→몸무게 ①	上底→윗변 ②
線下→뛰어나림 ①	重→무게 ①	基數→으뜸수 ②
端數→끝수 ②	括弧→묶음 ①	桁→자리 ①
除→나누기 ①	底面積→밑넓이 ①	點線→점금 ②
除數→나누는수 ②	底面→밑면 ②	二乘, 平方→제곱 ①
被除數→나누어지는수 ②	底邊→밑변 ②	縮尺→주린자 ①
割算→나눗셈 ①	四捨五入→반올림 ②	直徑→지름 ①
平行四邊形→나란이꼴 ①	半徑→반지름 ②	偶數→짝수 ②
平行線→나란히가는금→나란히금 ①	線上→받아올림 ①	對應角→짝진각 ②
剩餘→나머지 ①	切捨→버림 ①	對應→짝진다 ①
幅→나비 ①	原圖→본그림 ②	對應邊→짝진변 ②
面積→넓이 ①	體積→부피 ①	身長→키 ①
四角→네모/사각 ①	通分→분모를 같게 함 ②	簡便算→편한셈 ①
四角錐→네모뿔 ①	筆算→붓셈 ①	展開圖→펼친그림 ①
高→높이 ①	斜線→빗금 ①	百分率→푼수 ②
目盛→눈금 ①	減→빼기 ①	單位→하나치 ①
目測→눈대중 ①	引算→빼는셈→뺄셈 ①	寄數→홀수 ②

《김철수(1947)》이 《초등셈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유어 용어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모두 수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1947)》에서 제시하지 않은 고유어 용어인 곱수(←倍數)(1953년판 《셈본 5-1》 67쪽), 맴돌이(←回轉體)(1946년판 《초등셈본 6-1》 40쪽), 그림꼴(←圖形)(1949년판 《초등셈본(산수공부) 5-2》 3쪽), 맞선대(←對稱軸)(1953년판 《셈본 5-1》 67쪽), 옆넓이(←側面積)(1954년판 《셈본 6-1》 117쪽), 짝진변(←對應邊)과 짝진각(←對應角)(이상 1946년판 《초등셈본 6-1》 35쪽), 막대그림표(←막대圖表)(1953년판 《셈본 3-2》 108쪽), 나머지(←剩餘)(1954년판 《셈본 4-1》 23쪽), 나비(←幅)' (1954년판 《셈본 4-1》 46쪽), 눈금(←目盛)(1954년판 《셈본 4-2》 1쪽), 점금(←點線)(1954년판 《셈본 4-2》 81쪽)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고유어 용어를 교수요목기의 교과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 1>을 작성할 때 이들을 모두 포함시켰다.⁶⁾ 1954년판 《셈본 6-1》에서는 세모뿔, 네모뿔, 다섯모뿔, 여섯모뿔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표 1>에서는 이들을 대표해서 세모뿔과 네모뿔이라는 용어만 포함시켰다. 한편, 군정청 문교부가 《초등셈본》을 1946~1947년에 발행했기 때문에, <표 1>에서는 고유어 용어가 1947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적었다.⁷⁾

나란이꼴은 1948년판 《초등셈본(산수공부) 4-1》 30쪽에는 나란히꼴로 되어 있다. 것넓이는 1947년판 《초등셈본 5-2》 41쪽에는 걸넓이로 되어 있다. 또, 寄數는 奇數의 오기로 보인다. 1953년판 《셈본 5-1》 106쪽에서 괄호를 의미하는 묶음표를 볼 수 있다. 세모와 네모는 각각 일반적인 삼각형과 사각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모는 정삼각형 또는 이등변삼각형을, 네모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으뜸수(←基數)는 수를 나타내는 데 기초가 되는 수를 의미하며, 십진법에서는 0에서 9까지의 수를 말한다.⁸⁾ 1949년판 《초등셈본 6-2》 57쪽에서는 윗변이 아니라 웃변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한편, 1952년판 《셈본 3-2》에서는 뺄셈이라는 용어를 다수 볼 수 있다. 적어도 1952년까지는 빼는셈이 뺄셈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1954년판 《셈본 4-1》에서는 나란히금이 라는 용어를 다수 볼 수 있다. 적어도 1954년까지는 나란히가는금이 나란히금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1954년판 《셈본 4-2》에서는 모눈종이라는 용어를 다수 볼 수 있다. 적어도 1954년까지는 그림표종이가 모눈종이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2. 초등학교 고유어 수학 용어의 변천

가. 《1964 편수자료》

《1964 편수자료》의 서문에 따르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용어 중에서 불합리하고 미비한 것을 고치자는 여론이 있어서 《1964 편수자료》를 만들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표 1>의 고유어 용어가 《1964 편수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표 2>와 같이 정리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같다’ 는 여러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상용어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표 2>를 작성할 때, <표 1>에 있던 ‘같다’ 를 제외했다. <표 2>에서 ㉠은 한자어 용어를, ㉡은 영어 용어를 의미한다.

6) 이 이외에 웃면(←上面)(1954년판 《셈본 4-2》 36쪽), 못점(←頂點)(1949년판 《초등셈본(산수공부) 4-2》 40쪽), 나눗수(←除數)(1954년판 《셈본 4-2》 22쪽)도 찾을 수 있지만, 용례가 적어 <표 1>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1>에서 平方을 제곱, 立方을 세제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각각 제곱미터, 세제곱미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7) <표 1>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다리꼴이라는 용어는 최현배가 만들었다는 기사(경향신문, 1970. 3. 24)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출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8) 기수(基數)는 집합의 원소의 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표 2> 초등학교 고유어 용어의 변천(《1964 편수자료》)

용어(1947경)→용어(1964)	용어(1947경)→용어(1964)	용어(1947경)→용어(1964)
가로→가로 ①	돌대→회전축 ㉞	세모뿔→삼각뿔 ②
가슴둘레→×	동그라미→원 ㉞	세자리수→×
갑절/곱→×	두자리수→×	세제공→세제공 ①
값→값 ①	둘레→둘레 ①	셈→계산 ㉞
겉넓이→겉넓이/표면적 ①/㉞	들이→들이/용적 ①/㉞	속셈→×
고른수→평균 ㉞	마름모→마름모 ①	실지제기→실측 ㉞
곧은금→×	막대그림표→막대그래프 ③	아랫변→아랫변 ②
곱→곱 ①	맞모금→대각선 ㉞	어림셈→어림셈 ①
곱셈→곱셈 ①	맞선꼴→대칭도형 ㉞	어림수→어림수 ②
곱수→배수 ㉞	맞선대→대칭축 ㉞	어미금→모선 ㉞
곱하기→곱하기 ①	맞줄임→약분 ㉞	옆넓이→옆넓이/측면적 ①/㉞
곱하는수→승수 ㉞	맷돌이→회전체 ㉞	옆면→측면 ㉞
곱해지는수→피승수 ㉞	모기둥→각기둥 ②	올림→올림 ①
공→구 ㉞	모눈종이→모눈종이 ①	원기둥→원기둥 ②
굽은금→곡선 ㉞	모뿔→각뿔 ②	원둘레→원주 ㉞
그림꼴→도형 ㉞	모서리→모서리 ①	원뿔→원뿔 ②
그림표→그래프 ㉞	모양/꼴→×	윗변→윗변 ②
금→선 ㉞	뿔→뿔 ①	으뜸수→×
길이→길이 ①	몸무게→×	자리→자리 ①
꼭지점→꼭지점 ②	무게→무게 ①	점금→점선 ㉞
꺼어나림→받아내림 ①	묶음표→괄호 ㉞	제공→제공 ①
끝수→끝수 ②	밑넓이→밑넓이/밑면적 ①/②	줄인자→축척 ㉞
나누기→나누기 ①	밑면→밑면 ②	지름→지름 ①
나누는수→젯수 ㉞	밑변→밑변 ②	짝수→짝수 ②
나누어지는수→피젯수 ㉞	반올림→반올림 ②	짝진각→대응각 ㉞
나눗셈→나눗셈 ①	반지름→반지름 ②	짝진다→대응 ㉞
나란히꼴→평행사변형 ㉞	받아올림→받아올림 ①	짝진변→대응변 ㉞
나란히금→평행선 ㉞	버림→버림 ①	키→×
나머지→나머지 ①	본그림→×	편한셈→간편산 ㉞
나비→나비 ①	부피→부피/체적 ①/㉞	펼친그림→전개도 ㉞
넓이→넓이/면적 ①/㉞	분모를 같게 함→통분 ㉞	푼수→퍼센트 ㉞
네모→×	붓셈→×	하나치→단위 ㉞
네모뿔→×	빗금→사선 ㉞	홀수→홀수 ②
높이→높이 ①	빼기→빼기 ①	× → 겨냥도 ②
눈금→눈금 ①	빨셈→빨셈 ①	× → 그림그래프 ③
눈대중→목측 ㉞	빼는수→감수 ㉞	× → 꺾은선 ②
더하기→더하기 ①	빼지는수→피감수 ㉞	× → 나누어떨어짐 ①
더하는수→값수 ㉞	사다리꼴→×	× → 띠그래프 ③
더해지는수→피값수 ㉞	세로→세로 ①	
덧셈→덧셈 ①	세모→×	

《1964 편수자료》에서는 <표 1>에 있던 용어인 가슴둘레, 몸무게, 키, 갑절/곱, 네모, 세모, 꼴/모양, 본그림, 두자리수, 세자리수, 곧은금, 붓셈, 속셈, 사다리꼴, 으뜸수를 삭제했다. 삭제된 용어 대부분은 일상어를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자리수와 세자리수라는 용어를 제외한 것은 자리라는 용어가 대표로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변사다리꼴을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사다리꼴은 단순히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1964 편수자료》에서 1947년경에 만들어진 고유어 용어를 그대로 등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먼저

그림표→그래프, 푼수→퍼센트

와 같이 영어로 바꾸어 등재한 것이 있다. 다음으로

모기둥→각기둥, 모뿔→각뿔, 세모뿔→삼각뿔, 꺾어나름→받아내림

과 같이 기존의 고유어 용어를 새로운 고유어 용어로 바꾸어 등재한 것도 있다. 박한식(2007)에 의하면,

각주(角柱)→모기둥→각기둥, 각추(角錐)→모뿔→각뿔

이 된 것은 《1964 편수자료》를 만들 당시에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과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타협한 결과이다.

《1964 편수자료》에서 면적《넓이》, 용적《들이》, 체적《부피》, 측면적《옆넓이》, 표면적《겉넓이》, 밑면적《밑넓이》와 같이 표기하고 있는 바, 이때 《 》안의 용어 즉, 넓이, 들이, 부피, 옆넓이, 겉넓이, 밑넓이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⁹⁾ 한편, 꺾은선, 겨냥도, 나누어떨어짐, 그림그래프, 띠그래프와 같은 고유어 용어를 새롭게 등재하고 있다.¹⁰⁾ 그러나 <표 1>에 제시된 고유어 용어의 상당수가 《1964 편수자료》에서 다시 한자어 용어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나. 《1987 편수자료》

《1987 편수자료》는 《1964 편수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기서는 <표 2>의 고유어 용어가 《1987 편수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표 3>과 같이 정리했다. 《1987 편수자료》에 삼각뿔이 이미 등재되어 있고, 사각뿔도 새로 등재되었지만, <표 3>에서는 각뿔만 포함시켰다. 또, 체곱은 등재하고 세체곱은 등재하고 있지 않다. 《1987 편수자료》에서는 《1964 편수자료》에 등재되어 있던 끝수, 나비, 눈금, 모눈종이, 무게, 측면적(옆넓이)을 삭제했다. 삭제된 용어 대부분은 일상어를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측면적(옆넓이)을 삭제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64 편수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였던 사다리꼴을 다시 등재하고 있다. 간편산은 간편셈으로 바꾸어 등재하고 있다. 《1987 편수자료》에서 가뿔, 곱셈구구, 꺾은선그래프, 자리값과 같은 고유어 용어를 새로 등재하고 있다. 넓이와 면적, 겉넓이와 표면적, 밑넓이와 밑면적, 단위넓이와 단위면적, 부피와 체적, 단위부피와 단위체적은 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나 들이와 용적은 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등재하고 있지 않고, 들이만 등재하고 있다.

9) ‘저면적《밑넓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10) 《1964 편수자료》에서 ‘곱은금→꼭선’이 된 것을 고려하면 ‘곧은금→직선’이 되어야 일관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직선은 등재하고 있지 않다. 또 ‘셈→계산’이 된 것을 고려하면 ‘붓셈→필산’, ‘속셈→암산’이 되어야 일관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필산과 암산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다. 《1964 편수자료》에 기수(基数)가 등재되어 있으나, 그것은 집합의 원소의 수를 의미한다. 그것은 으뜸수 즉, 수를 나타내는데 기초가 되는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표 3> 고유어 용어의 변천(《1987 편수자료》)

용어(1964)→용어(1987)	용어(1964경)→용어(1987)	용어(1964경)→용어(1987)
가로→가로 ①	더하기→더하기 ①	세로→세로 ①
각기둥→각기둥 ②	덧셈→덧셈 ①	아랫변→아랫변 ②
각뿔→각뿔 ②	둘레→둘레 ①	어림셈→어림셈 ①
간편산→간편셈 ②	들이/용적→들이 ①	어림수→어림수 ②
값→값 ①	띠그래프→띠그래프 ③	옆넓이/측면적→×
겨냥도→겨냥도 ②	마름모→마름모 ①	올림→올림 ①
겉넓이/표면적→겉넓이/표면적 ①/㉠	막대그래프→막대그래프 ③	원기둥→원기둥 ②
곱→곱(product) ①	모눈종이→×	원뿔→원뿔 ②
곱셈→곱셈 ①	모서리→모서리 ①	윗변→윗변 ②
곱하기→곱하기 ①	몫→몫 ①	자리→자리 ①
그림그래프→그림그래프 ③	무게→×	제공→제공 ①
길이→길이 ①	밑넓이/밑면적→밑넓이/밑면적 ①/②	지름→지름 ①
꺾은선→꺾은선 ②	밑면→밑면 ②	짝수→짝수 ②
꼭지점→꼭지점 ②	밑변→밑변 ②	홀수→홀수 ②
끝수→×	반올림→반올림 ②	× →가뭇 ②
나누기→나누기 ①	반지름→반지름 ②	× →곱셈구구 ②
나누어떨어짐→나누어떨어짐 ①	받아내림→받아내림 ①	× →꺾은선그래프 ④
나눗셈→나눗셈 ①	받아올림→받아올림 ①	× →단위길이
나머지→나머지 ①	버림→버림 ①	× →단위넓이/단위면적 ②/㉠
나비→×	부피/체적→부피/체적 ①/㉠	× →단위부피/단위체적 ②/㉠
넓이/면적→넓이/면적 ①/㉠	빼기→빼기 ①	× →사다리꼴 ①
높이→높이 ①	빨셈→빨셈 ①	× →자리값 ①
눈금→×		

다. 《2007 편수자료》

《2007 편수자료》는 《1987 편수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기서는 <표 3>의 고유어 용어가 《2007 편수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표 4>와 같이 정리했다. 《2007 편수자료》에서는 《1987 편수자료》에 있던 용어인 값을 제외시키고 있고, 《1987 편수자료》에 등재하지 않았던 옆면, 무게, 원둘레를 등재하고 있다. 다만, 원둘레는 원주와 함께 병용할 수 있는 용어로 등재하고 있다. 또한 더하는 수, 빼는 수, 곱하는 수, 나누는 수를 각각 가수, 감수, 승수, 제수와 병용할 수 있는 용어로, 그리고 더해지는 수, 빼지는 수, 곱해지는 수, 나뉘는 수를 각각 피가수, 피감수, 피승수, 피제수와 병용할 수 있는 용어로 등재하고 있다. ‘보다 작다’, ‘보다 크다’도 각각 미만, 초과와 병용할 수 있는 용어로 새로 등재하고 있다. 또, 곱셈표를 곱셈구구와 병용할 수 있는 용어로 등재하고 있다. 이 이외에 어림과 할푼리를 새롭게 등재하고 있다.¹¹⁾ 《2007 편수자료》에서 삼

각뿔과 사각뿔 이외에 오각뿔과 육각뿔도 등재하고 있지만, <표 4>에서는 이들을 대표해서 각뿔만 포함시켰다. 또, 각뿔의 꼭짓점, 각의 꼭짓점, 원뿔의 꼭짓점도 등재하고 있으나, <표 4>에서는 이들을 대표해서 꼭짓점만 포함시켰다.

<표 4> 고유어 용어의 변천(≪2007 편수자료≫)

용어(1987)→용어(2007)	용어(1987)→용어(2007)	용어(1987)→용어(2007)
가로→가로 ①	단위부피/단위체적→단위부피 ②	어림수→어림수 ②
가뿔→가뿔 ②	더하기→더하기 ①	올림→올림 ①
각기둥→각기둥 ②	덧셈→덧셈 ①	원기둥→원기둥 ②
각뿔→각뿔 ②	둘레→둘레 ①	원뿔→원뿔 ②
간편셈→간편셈 ②	들이→들이 ①	윗변→윗변 ②
값→×	띠그래프→띠그래프 ③	자리→자리 ①
겉넓이/표면적→겉넓이 ①	마름모→마름모 ①	자리값→자리값 ①
겨냥도→겨냥도 ②	막대그래프→막대그래프 ③	제공→제공 ①
곱→곱 ①	모서리→모서리 ①	지름→지름 ①
곱셈→곱셈 ①	뿔→뿔 ①	짝수→짝수 ②
곱셈구구→곱셈구구/곱셈표 ②/②	밑넓이/밑면적→밑넓이 ①	홀수→홀수 ②
곱하기→곱하기 ①	밑면→밑면 ②	× →곱하는 수/승수 ②/㉠
그림그래프→그림그래프 ③	밑변→밑변 ②	× →곱해지는 수/피승수 ②/㉠
길이→길이 ①	반올림→반올림 ②	× →나누는 수/제수 ②/㉠
꺾은선→꺾은선 ②	반지름→반지름 ②	× →나뉘지는 수/피제수 ②/㉠
꺾은선그래프→꺾은선그래프 ④	받아내림→받아내림 ①	× →더하는 수/가수 ②/㉠
꼭지점→꼭짓점 ②	받아올림→받아올림 ①	× →더해지는 수/피가수 ②/㉠
나누기→나누기 ①	버림→버림 ①	× →무게 ①
나누어떨어짐→나누어떨어짐 ①	부피/체적→부피 ①	× →보다 작다/미만 ①/㉠
나눗셈→나눗셈 ①	빼기→빼기 ①	× →보다 크다/초과 ①/㉠
나머지→나머지 ①	빨셈→빨셈 ①	× →빼는 수/감수 ②/㉠
넓이/면적→넓이 ①	사다리꼴→사다리꼴 ①	× →빼지는 수/피감수 ②/㉠
높이→높이 ①	세로→세로 ①	× →어림 ①
단위길이→단위길이 ②	아랫변→아랫변 ②	× →옆면 ②
단위넓이/단위면적→단위넓이 ②	어림셈→어림셈 ①	× → 원둘레/원주 ②/㉠

라. ≪2015 편수자료≫

≪2015 편수자료≫는 ≪2007 편수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5 편수자료≫의 서문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여, 용어의 표기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표기에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표 4>의 고유어 용어가 ≪2015 편수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표 5>와 같이 정리했다. ≪2015 편수자료≫에서는 자리

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할푼리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표 4>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잡기(의) 원리와 자릿값(의) 원리를 병용할 수 있는 용어로 새롭게 등재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용어가 초등학생용 용어가 아니라고 보아 <표 5>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5> 고유어 용어의 변천(《2015 편수자료》)

용어(2007)→용어(2015)	용어(2007)→용어(2015)	용어(2007)→용어(2015)
가로→가로 ①	높이→높이 ①	보다 크다/초과→보다 크다/초과 ①/㉠
가뭇→가뭇/가정뭇 ②	단위길이→단위길이 ②	부피→부피 ①
각기둥→각기둥/다각기둥 ②	단위넓이→단위넓이 ②	빼기→빼기 ①
각뿔→각뿔/다각뿔 ②	단위부피→단위부피 ②	빼는 수/감수→빼는 수/감수 ②/㉠
간편셈→간편셈 ②	더하기→더하기 ①	뺄셈→뺄셈 ①
겉넓이/표면적→겉넓이 ①	더하는 수/가수→더하는 수/가수 ②/㉠	빼지는 수/피감수→빼지는 수/피감수 ②/㉠
겨냥도→겨냥도 ②	더해지는 수/피가수→더해지는 수/피가수 ②/㉠	사다리꼴→사다리꼴 ①
곱→곱 ①	덧셈→덧셈 ①	세로→세로 ①
곱셈→곱셈 ①	둘레→둘레 ①	아랫변→아랫변 ②
곱셈구구/곱셈표→곱셈구구 ②	들이→들이 ①	어림→어림 ①
곱하기→곱하기 ①	띠그래프→띠그래프 ③	어림셈→어림셈 ①
곱하는 수/승수→곱하는 수/승수 ②/㉠	마름모→마름모 ①	어림수→어림수 ②
곱해지는 수/피승수→곱해지는 수/피승수 ②/㉠	막대그래프→막대그래프 ②	옆면→옆면 ②
그림그래프→그림그래프 ③	모서리→모서리 ①	올림→올림 ①
길이→길이 ①	뭇→뭇 ①	원기둥→원기둥 ②
꺾은선→꺾은선 ②	무게→무게①	원둘레/원주→원둘레/원주 ②/㉠
꺾은선그래프→꺾은선그래프 ④	밑넓이→밑넓이/밑면적 ①/②	원뿔→원뿔 ②
꼭짓점→꼭짓점 ②	밑면→밑면 ②	윗면→윗면 ②
나누기→나누기 ①	밑변→밑변 ②	자리→자리 ①
나누는 수/제수→나누는 수/제수 ②/㉠	반올림→반올림 ②	자리값→자릿값 ①
나누어떨어짐→나누어떨어짐 ①	반지름→반지름 ②	제공→제공 ①
나뉘지는 수/피제수→나뉘어지는 수/피제수 ②/㉠	받아내림→받아내림 ①	지름→지름 ①
나눗셈→나눗셈 ①	반아올림→반아올림 ①	짝수→짝수 ②
나머지→나머지 ①	버림→버림 ①	홀수→홀수 ②
넓이→넓이 ①	보다 작다/미만→보다 작다/미만 ①/㉠	

《2015 편수자료》에서는 가정뿔, 다각기둥, 다각뿔을 각각 가뿔, 각기둥, 각뿔과 병용할 수 있는 용어로 등재하고 있다. 특히 가정뿔은 《2015 편수자료》에서 새롭게 등재한 용어이다. 그러나 《2007 편수자료》에서 곱셈구구와 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등재하고 있던 곱셈표를 제외했다. 또, 밑면적을 밑넓이와 병용할 수 있는 용어로 등재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에서 고유어 용어가 만들어지고 정착되어 온 변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김철수(1947)》을 중심으로 고유어 용어의 대두에 관해, 그리고 《1964 편수자료》, 《1987 편수자료》, 《2007 편수자료》, 《2015 편수자료》를 중심으로 고유어 용어의 변천에 관해 논의한다.

첫째로, 고유어 용어는 1946년에 군정청 문교부 주도의 교수요목제정위원회와 학술용어제정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조선일보 1947. 3. 23).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제정위원회와 학술용어제정위원회의 전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또 6.25 사변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문교부, 1988). 그렇기는 하지만, 《김철수(1947)》에서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유어 용어를 볼 수 있다. 그가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의 수학 편수사(이종국, 2001)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제시한 일람표는 교수요목제정위원회와 학술용어제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당시에 만들어진 고유어 용어는 대개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고유어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만든 것을 축약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 만큼 그 당시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낯선 용어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유형 ①이 78개, 유형 ②가 35개, 유형 ③이 1개이다. <표 1>에서 오늘날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고유어 용어와 함께 사라진 고유어 용어를 볼 수 있다.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고유어 용어 중에도, 오늘날의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름모나 계급 등과 같이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는 것도 있기는 하다(김연식, 박교식, 1994). 마름을 모르고는 마름모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제’가 ‘저의’의 준말이라는 것을 모르면 계급의 의미를 알 수 없다.

둘째로, 《1964 편수자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1947년경에 만들어진 고유어 용어의 반 정도가 다시 한자어 용어로 환원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 대신 선을 다시 사용하면서 곡선(←굽은금), 대각선(←맞모금), 모선(←어미금), 사선(←빗금), 점선(←점금), 평행선(←나란히금)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나란히’가 평행으로 환원되면서 나란히꼴도 평행사변형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외에도 많은 한자어 용어가 되돌아왔고, 그러한 한자어 용어를 대부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1964 편수자료》에서 밑면은 그대로 두면서 ‘옆면→측면’으로 한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 둘레를 그대로 두면서 ‘원둘레→원주’로 한 것도 일관적이지 않다. ‘셈→계산’으로 하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렵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일관적이지 않지만, 이미 이들 용어가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자어 용어로 되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유형 ①이 39개, 유형 ②가 18개, 유형 ③이 3개이다. <표 1>의 고유어 용어의 수와 비교할 때, 그 수가 거의 반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1987 편수자료》에서는 길이, 높이, 넓이, 둘이, 부피는 등재하면서 무게를 삭

제한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 곁넓이(표면적)과 밑넓이(밑면적)은 등재하면서 옆넓이(측면적)을 삭제한 것도 일관적이지 않다. 측면을 삭제했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고유어 용어인 옆면도 등재하고 있지 않은데, 밑면을 등재하면서 옆면을 등재하지 않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 한편, 《1964 편수자료》에서는 넓이, 들이, 부피, 옆넓이, 곁넓이, 밑넓이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지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1987 편수자료》에서는 넓이, 곁넓이, 밑넓이, 단위넓이, 부피, 단위부피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표 3>에서 유형 ①이 35개, 유형 ②가 23개, 유형 ③이 3개, 유형 ④가 1개이다.

넷째로, 《2007 편수자료》에서는 넓이, 곁넓이, 밑넓이, 단위넓이, 들이, 부피, 단위부피를 각각 면적, 표면적, 밑면적, 단위면적, 용적, 체적, 단위체적과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등재해서, 그것들을 고유어 용어로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유형 ①이 38개, 유형 ②가 33개, 유형 ③이 3개, 유형 ④가 1개이다. <표 2>의 고유어 용어의 수와 비교할 때, 유형 ②의 수가 다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로, 《2015 편수자료》에서는 각기둥과 다각기둥, 각뿔과 다각뿔을 병용하게 한 것을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이 병용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또, 밑면적을 밑넓이와 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등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곁넓이를 단독으로 등재하고 있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다. <표 5>에서 유형 ①이 38개, 유형 ②가 33개, 유형 ③이 3개, 유형 ④가 1개이다.

《1964 편수자료》에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옆넓이를 등재하고 있지만, 《1987 편수자료》~《2015 편수자료》에서는 옆넓이를 등재하지 않고 있다. 《2007 편수자료》~《2015 편수자료》에서 옆면을 등재하고 있고, 또 《김철수(1947)》부터 《2015 편수자료》에 이르기까지 곁넓이와 밑넓이가 빠짐없이 등재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옆넓이를 등재하지 않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1946~1947년경에 초등학교 수학에서 적지 않은 수의 고유어 용어가 만들어졌지만, 《2015 편수자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통용하는 것은 그 중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1964 편수자료》에서 다시 한자어 용어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들이, 넓이, 부피와 같이 한자어 용어와 고유어 용어의 병용이라는 형태를 벗어나, 고유어 용어로서 그 자리를 찾은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1964 편수자료》에서 한자어 용어로 되돌아 간 고유어 용어는 그 이후로는 대부분 다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수학 교수·학습에서 한자어 용어의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고, 고유어 용어의 사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허민, 2013, 2016a, 2016b).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유어 사용을 서두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1964 편수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947년경에 만들어진 고유어 용어의 절반 정도가 한자어 용어로 환원된 사실이 서투르고 갑작스럽게 고유어 용어를 만드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고유어 용어를 다시 한자어 용어로 환원한 바 있고, 이 사례도 한자어 용어를 고유어 용어로 바꾸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박교식, 2005).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한 고유어 용어가 있는 반면에, 한자어 용어로 환원된 고유어 용어도 있다. 그것은 한자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편리하지 않은 고유어 용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례는 이와 같이 불편한 고유어 사용이 영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고유어 용어가 있을 때, 그것을 단지 고유어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 고유어 용어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성공적인 고유어 용어의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유어 용어를 만들려는 시도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1964년 편수자료》 이후로 새로운 고유어 용어를 만들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유어 용어의 성공을 바랄 수는 없다. 한자어 용어를 대신할 수 있는 고유어 용어의 고안과 함께, 그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tessellation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유어 용어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한글로 읽어 ‘테셀레이션’이라 하기도 하고, 고유어인 ‘쪽매’를 사용하여 ‘쪽매맞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느 것도 공인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또, 《2007 편수자료》에 가뭇, 어림셈, 어림수라는 고유어 용어가 등재되어 있었지만,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그러한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유어 용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관련 전문가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고유어 용어가 공인되고 사용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국어 조어법과 관련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또, 북한과 연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어 수학 용어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현재 잘 존속하고 있는 고유어 용어가 가진 생존력의 정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새로 고안될 고유어 용어가 성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생존력은 일종의 적자생존에 따른 것이다.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생존력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고유어 용어를 만들 때, 관련 전문가의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 그 생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 고유어 용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현재 잘 존속하고 있는 고유어 용어를 관통하고 있는 생존력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존속되지 않는 고유어 용어의 실패 요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새로 고안될 고유어 용어가 성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다리꼴은 존속하고 있지만, 나란히꼴은 존속하고 있지 못하다. 곱셈은 존속하고 있지만, 곱수는 존속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현재 존속하고 있지 못한 고유어 용어를 관통하고 있는 실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그러한 실패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고유어 용어를 만들어야 그 고유어 용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1970. 3. 24). 외술의 造語.
- 교육부 (1994). 산수 6-2.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7). 수학 6-2.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9). 수학 6-1.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기초과학, 정보 편.
- 교육부 (2015b).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8].
- 교육인적자원부 (2004). 편수자료 III 기초과학 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편수자료 III 기초과학 편 (제2판).
- 군정청 문교부 (1946a). 초등셈본 4-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군정청 문교부 (1946b). 초등셈본 6-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군정청 문교부 (1947). 초등셈본 5-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김연식, 박교식 (1994). 우리나라의 학교 수학 용어의 재검토. 대한수학교육학회논문집, 4(2), 1-10.
- 김철수 (1947). 초등셈본 지도해설서 (문교부 발행 국정교과서 의거) (6年 前期). 서울: 금융도서문구주식회사.
- 도종훈, 박지현 (2013a). 교수요목기부터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까지 학교 수학 용어의 표현 변화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23(4), 491-503.
- 도종훈, 박지현 (2013b).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수학 용어 변화표. 초등교육연구, 28.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49-80.
- 문교부 (1948). 초등셈본(산수공부) 4-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문교부 (1949a). 초등셈본 2-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문교부 (1949b). 초등셈본(산수공부) 5-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문교부 (1949c). 초등셈본 6-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문교부 (1949d). 초등셈본(산수공부) 4-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문교부 (1950). 셈본 5-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문교부 (1952a). 셈본 1-2. 자유인쇄공사.
- 문교부 (1952b). 셈본 3-2. 연학사.
- 문교부 (1953a). 셈본 3-2.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문교부 (1953b). 셈본 5-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문교부 (1953c). 셈본 6-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문교부 (1954a). **셈본 4-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문교부 (1954b). **셈본 4-2**.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문교부 (1954c). **셈본 6-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문교부 (1964). **편수자료 제5집**.
- 문교부 (1967). **산수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 (1973). **산수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 (1982). **산수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 (1983). **산수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 (1988). **문교40년사**.
- 문교부 (1990). **산수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박교식 (2005). 북한의 학교수학 용어의 현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학교수학**, 7(1). 1-15.
- 박지현, 도종훈 (2011).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수학용어의 비교 분석. **제16회 國際數學英才教育세미나(2011. 8. 43-55 August 2011) 프로시딩**. 43-55.
- 박한식 (2007). 수학용어에 대하여. **한국수학교육학회 뉴스레터**, 23(6). 통권112호.
- 서울신문 (1946. 3. 25). 군정청 학무국,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설치.
- 이종국 (2000).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광복·교수 요목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을 중심으로(55-151). 허강, 광상만, 김용만, 정대범, 함수곤, 한명희, 이경환, 이종국, 박소희, 유장상. **한국편수사 연구(I)**.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허강, 광상만, 김용만, 정대범, 함수곤, 윤종영, 김영일, 이종국, 박소희, 유장상 (2001). **한국편수사 연구(II)**.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정재환 (2012). 해방 후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의 내용과 성과. **한글**, 296, 151-196.
- 조선일보 (1946. 11. 20). 문교부,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조직.
- 조선일보 (1947. 3. 23). 알기 어려운 신제 국문 용어. 문교부 편찬 교과서에 관한 비판.
- 조선일보 (1947. 3. 23). 통일용어제정은 각계 권위를 망○해서 된 것.¹²⁾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3). **교과서 편수 자료: 기초 과학 편**.
- 허민 (2013). 수학 용어의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수학교육논문집**, 27(4). 391-46.
- 허민 (2016a). 수학에 쓰이는 한자말에 대한 소고. **수학교육논문집**, 30(2). 121-138.
- 허민 (2016b). 한자말 수학 용어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570들 한글날 맞이 한글문화토론회 (한자어의 이해 과정과 어원 지식의 역할, 2016. 9. 23) 자료집**. 47-56.

12) ○는 관독 불가. 조선일보를 검색하면 망죄(網罪)라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망죄(網罪)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정황상 망라(網羅)로 보이지만, 원문을 관독할 수 없다.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native korean terminology in elementary mathematics

Park Kyo Sik¹³⁾

In 1946, many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are coined new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USAMGIK(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rough referring to the opinions of various circles. In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created at the time, many of them are coined, either by using native korean words corresponding to the meaning of chines characters, or by abbreviating newly coined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However, in less than 20 years, about half of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made in 1946-1947 has been went back to chines character mathematical terms, and most of those chines character mathematical terms has been used up to now from then. Although,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mathematics, the discomfort of chinese characters mathematical terms is pointed out and it is claimed that the use of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is helpful, it is not everything to hurry to use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Attempts to convert chinese characters mathematical terms into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should be prudent. When a certain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 is used, if it must be used only because it is a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 then the term has no choice but to fail.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as conclusions for the successful use of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in this viewpoint. First, attempts to coin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should be continu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urvival power of well-preserved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Thir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ilure factors of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s which does not survive today.

Key word: chines character mathematical terminology, elementary mathematics, mathematical terminology, native korean mathematical terminology

논문접수: 2017. 04. 15

논문심사: 2017. 05. 08

게재확정: 2017. 05. 19

13) pkspark@gin.ac.kr